

나무 교회 (거짓 신들의 세상)

June 28, 2016



약 2개월 동안 저희 나무 교회 청년부들은 Timonty Keller 목사님의 “거짓 신들의 세상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배우며 생각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의 눈높이, 그리고 그 속의 예시들을 통해 우리가 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정말 중요하며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‘썩통 하나님’을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정말 유익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부분 외에도 우리가 청년부라는 한 소속 안에서 진중한 모임을 가지며 느낀 점들이 참 깊고 컸던 것 같습니다.

10명이 채 안되는 저희 나무 교회 청년부는 이 전에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하지만 다들 너무 바쁘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는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서로 깊게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워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새로운 청년이 오게 되면 마음을 열고 소속감을 가지는게 어려운 듯 보였으며 그들을 가장 잘 맞이해주고 환영해줘야 하는 청년부들도 그러한 소속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점점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.

어느 날 저희 정주성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들이 모였을 때 “거짓 신들의 세상” 책을 한권씩 나눠주셨고 매 주 한 chapter 씩 읽게 되었습니다. 각자 읽는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오디오 복을 스피커로 연결해 들려주셨고 저희들은 책의 내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으니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대도 더더욱 형성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여러가지 중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. 너무나도 각자

바쁜 삶 속에서 한 시간에 모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며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예민하지만 가장 솔직한 우리 세대의 이상들, 사랑, 돈, 성공, 권력 등의 직설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깨닫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상대방의 인생, 가치관, 그리고 경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벽이 허물어 지는 듯 했고 평소에 잘 몰랐던 형제님이나 자매님들도 알게되며 서로의 생각과 서로를 향한 이해심도 생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

이 세상에는 교회를 오는 것 외에도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. 너무나도 많기에 연약한 인간들인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치우치며 잘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유혹들과 재미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더더욱 쉽게 놓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완벽한 만족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씩은 세상적인 것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서로 다르지만 가장 비슷한 청년부들끼리 모여 이러한 세상적인 주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거울 삼아 나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스스로의 벽이 깨지고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의 시발점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. 단순히 모여 책을 읽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젊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하며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

이렇게 시작된 모임이지만 앞으로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주제들을 다룬 책들을 함께 읽으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에게 참으로 복 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주신 저희 정주성 목사님과 Just Show up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, 그리고 언제나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.

이다솜 (청년부)